

-아/어 대다

자꾸 ~아/어 대다

짜증이 날 정도로 되풀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동작을 바꾸지 않고 색채를 더하는 보조 동사 중 하나로, 이것은 늘 부정적인 색채를 더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끝 모음 ㅣ나 ㅜ	-아 대다	놀다 → 놀아 대다
그 밖의 모음	-어 대다	떠들다 → 떠들어 대다
하다 동사	해 대다	불평해 대다
동사	되풀이할 수 있는 동작	울다, 떠들다, 먹다, 웃다
평가	늘 부정적	공부해 대다는 어색함
중립적인 습관	-곤 하다	가곤 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: -아요/어요 울어 대다, 떠들어 대다, 먹어 대다, 웃어 대다.

되풀이할 수 있는 동작 동사와 쓰며, 평가는 늘 부정적입니다. 되풀이가 지나치거나, 시끄럽거나, 보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.

이 부정적인 의미는 경향이 아니라 제약입니다. 열심히 공부해 댔다는 틀리게 들립니다.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
다음과 비교해 보세요: -곤 하다. 그것은 습관을 중립적으로 전하지만, -아/어 대다는 말하는 사람의 짜증을 문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.

■ 예문

- 1 아이들이 밤새 떠들어 대는 통에 한숨도 못 잤다.
- 2 아기가 그치지 않고 울어 대서 어쩔 줄 몰랐어요.
- 3 그는 하루 종일 불평해 대기만 했다.
- 4 먹어 대는 걸 보니 배가 몹시 고팠던 모양이다.
- 5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 대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.
- 6 옆에서 자꾸 웃어 대니 집중이 되지 않았다.

■ 비교

-곤 하다
-곤 하다는 판단 없이 습관을 전하고, -아/어 대다는 그것을 불평합니다.
가끔 울곤 했어요. (가끔 울곤 했다) / 울어 댔어요. (끝없이 울어 댔다)

-아/어 내다
두 보조 동사는 반대 방향입니다. 내다는 어려움을 끝까지 견딘 것을 높이 평가하고, 대다는 쓸데없는 되풀이를 나무랍니다.
참아 댔어요. (끝까지 참았다) / 먹어 댔어요. (자꾸 먹어 댔다)

-아/어 버리다
버리다는 한 번의 동작을 끝내 버린 것을, 대다는 같은 동작을 거듭한 것을 나타냅니다.
다 먹어 버렸어요. (다 먹어 치웠다) / 계속 먹어 댔어요. (계속 먹고 또 먹었다)

■ 주의

- ✗ 그 학생은 밤늦게까지 공부해 댔다.
○ 그 학생은 밤늦게까지 공부했다.
대다에는 못마땅함이 담겨 있습니다. 칭찬할 만한 노력에 붙이면 모순이 됩니다.
- ✗ 그는 키가 커 댔다.
○ 그는 키가 컸다.
이 보조 동사는 되풀이할 수 있는 동작 동사와 씁니다. 상태나 변화는 거듭할 수 없습니다.
- ✗ 아기가 한 번 울어 댔어요.
○ 아기가 한참 울어 댔어요.
핵심은 되풀이입니다. 한 번뿐인 일에는 이 보조 동사가 할 역할이 없습니다.